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 현 정

이 동 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337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 학습된 무기력 검사, 학업 실패 내성 검사, 그리고 회복탄력성 검사 문항이 포함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사이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된 무기력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를 학업 실패 내성이 부분매개하였다. 셋째,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하였다. 넷째,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완화를 위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여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 양육 태도, 학습된 무기력,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초등학생

* 본 논문은 최현정(2018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의 심사과정은 전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부편집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귀,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2437, E-mail: lee82@yonsei.ac.kr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패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점차 무기력해진다. 이 과정을 Seligman(1972)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무력감은 장기적으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Durbin, 2014; Lazarus, 1991). 무기력을 학습하는 과정은 특히 학업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성적순으로 서열화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경험이 반복된다. 교육부의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무기력함’(17.0%)이 ‘가정환경 문제’(47.4%)와 ‘학교 부적응’(22.3%)에 이어 3위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학업 부담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지금까지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선희, 2005; 김영미, 2012; 이지연, 2011; 황미영, 윤미선, 2016). 이는 학습된 무기력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 2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무기력을 보였고(김민희, 2007),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비교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무기력 수준이 더 높았다(주지은, 1999).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 이전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유지영, 김춘경, 2015).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인지 발달에 있어 미숙하기에 실패 경험을 하더라도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여겨졌지

만(Weisz, Yeates, Robertson, & Beckham, 1982), 이후 연구들은 학습된 무기력은 영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Ruthig, Perry, Hall, & Hladkyj, 2004). 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된 무기력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이경옥, 2002; 정남숙, 2006),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유지영, 김춘경, 2014).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중에서 특히 가정 요인인 부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동이 자기 평가를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고(김재현, 2006), 특히 아동기의 자녀는 청소년기보다 부모 의존도가 높기에 부모의 영향력은 또래 집단이나 학교, 지역사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자녀에게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전반적,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이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기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정서 발달 전반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김향희, 1996; 한지선, 2008),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서는 학업 실패 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을 들 수 있다. 실패 경험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한다는 Seligman의 연구와는 결을 달리하여, 적절한 실패 경험은 오히려 긍정적, 건설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건설적 실패 이론(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을 제기한 Clifford(1984)는 이처럼 실패를 극복하고 긍정

적으로 활용해 내는 힘을 ‘학업 실패 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초기에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건설적 실패 이론이 상반되는 견해로 여겨졌지만,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둘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주지은, 1999).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학습된 무기력과 학업 실패 내성 사이에 높은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김영효, 2008; 김영희, 강혜원, 2008; 주지은, 1999).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개인 내적 변인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한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으로, 흔히 ‘마음의 근육’으로 비유된다(김주환, 2011; 최성애, 2014). 유기체의 심리 특성을 실험한 여러 연구에서는 외부의 부정적 스트레스 자극에도 여간해서는 타격을 받지 않는 특정 부류가 발견되는데, Seligman의 개 실험에서도 3분의 1가량은 통제 불능의 전기충격 속에서도 무기력을 학습하지 않았고(Hiroto & Seligman, 1975),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부정적 환경에 좀처럼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으며(김주환, 2011; 박경숙,

2013; Seligman, 1990)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역경과 고난,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정진하는 힘을 지닌 사람을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회복탄력성은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는 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외부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최민아, 신우열, 박민아,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개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학업 실패 내성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 사이를 매개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특히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즉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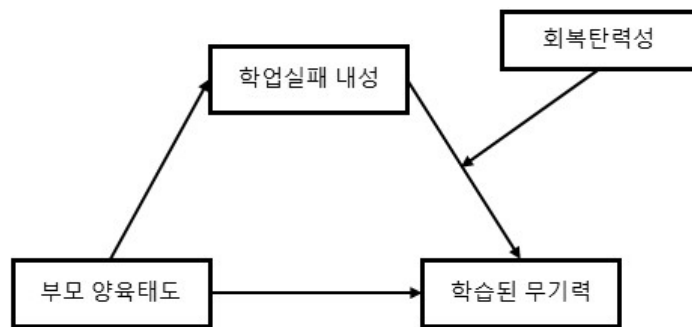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재학생 186명(55.2%)과 6학년 재학생 151명(44.8%)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0.4%(170명), 여학생 49.6%(167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각 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설문을 실시하였다. 취합된 설문 자료는 346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3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도구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정(1984)이 제작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 자녀 간의 심리적 관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의 세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마다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반응 범주는 ‘항상 그렇다.’(4), ‘자주 그렇다.’(3), ‘가끔 그렇다.’(2), ‘전혀 아니다.’(1)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수용-거부에서 수용적일수록, 자율-통제에서 자율적일수록, 성취 압력에 대한 과잉-비과잉에서 압력의 비과잉일수록 높은 점수로 해석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김기정(1984)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 이하 α 계수로 표기)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학업 실패 내성

학업 실패 내성은 김아영(2002)이 개발한 ‘표준화 학업동기척도’에 포함된 학업적 실패 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요인인 감정, 행동, 과제 수준 선호를 측정하는 각 6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형식은 6점 평정척도로 점수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산출되며, 결과를 처리할 때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 채점 후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실패 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학년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왔지만, .82에서 .85 사이에 분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학습된 무기력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신기명(1990)이 제작하고, 이영선(1997)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의 난이도 등을 수정 보완한 ‘아동용 학습된 무기력 검사’를 이용하였다. 신기명의 검사의 7개의 하위 척도(자신감 결여, 우울-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감 결여)에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영선은 7개의 하위 척도는 유지한 채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문항 수를 총 34 문항으로 선별·구성하였다. 질문은 4점 평정척도로 ‘항상 그렇다.’(4), ‘대체로 그렇다.’(3),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선(1997)의 연구에서 산출된 α 계수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eivich와 Shatte(2003)가 제시한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검사 도구(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 KRQ - 53)와, 청소년용 검사 도구>Youth 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 YKRQ-27)를 개발하였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도구인 ‘YKRQ-27’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용이기에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초등학교 교사에게 자문하여 문항 안에 괄호로 설명을 제시하였다. 통제성, 만족도, 사회성의 3가지 영역에 각 3가지씩 9개의 하위 척도에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형식은 5점 평정척도로 점수는 ‘항상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연구(이칭, 문혁준, 2016)에서 보인 α 계수는 .88이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연구(조용우, 2015)에서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 도구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부모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학습된 무기력)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인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가 제안한 순차적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부모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매개(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4)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할 경우에는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라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결과를 통합한 최종 연구가설인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14)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

표 1. 연구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 = 337)

변인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학습된 무기력
부모 양육 태도	-			
학업 실패 내성	.35***	-		
회복탄력성	.44***	.57***	-	
학습된 무기력	-.41***	-.61***	-.62***	-
평균	1.67	3.18	2.14	3.38
표준편차	.43	.79	.64	.48

*** $p < .001$.

력성, 학습된 무기력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 양육 태도는 학업 실패 내성($r = .35, p < .001$), 회복탄력성($r = .44, p < .001$)과의 정적 상관이, 학습된 무기력($r = -.41, p < .001$)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학업 실패 내성의 경우에는 부모 양육 태도($r = .35, p < .001$), 회복탄력성($r = .57, p < .001$)과의 정적 상관이, 학습된 무기력($r = -.61, p < .001$)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복탄력성은 부모 양육 태도($r = .44, p < .001$), 학업 실패 내성($r = .57, p < .001$)과의 정적 상

관이, 학습된 무기력($r = -.62, p < .001$)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경우 부모 양육 태도($r = -.41, p < .001$), 학업 실패 내성($r = -.61, p < .001$), 회복탄력성($r = -.62, p < .001$)과의 부적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를 학업 실패 내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3단계의 회귀

표 2. 부모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N = 337)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t	R ²	F
1	부모 양육 태도	학습된 무기력	-.46	.06	-.41	-8.15***	.17	66.45***
2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64	.09	.35	6.77***	.12	45.77***
3	부모 양육 태도	학습된 무기력	-.25	.05	-.22	-4.96***	.42	120.69***
	학업 실패 내성		-.33	.03	-.54	-12.09***		

*** $p < .001$.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가 학업 실패 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이 동시에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1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66.45, p < .001$),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의 설명량은 1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양육 태도가 학업 실패 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5.77, p < .001$), 학업 실패 내성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의 설명량은 1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 태도가 학업 실패 내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5, p < .001$).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20.69, p < .001$),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의 설명량은 42%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부모 양육 태도($\beta = -.22, p < .001$)와 학업 실패 내성($\beta = -.54, p < .001$)이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β 의 절대값)가 .41에서 3단계에서 .22로 감소한 동시에 3단계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모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 실패 내성이 부분매개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들만으로는 부모 양육 태도에서 학업 실패 내성으로 이행되는 경로(a)와 학업 실패 내성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는 경로(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ab) 자체의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4)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ab)의 표준오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일반적으로 5,000번 이상)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ab)가 정상분포의 가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을 제시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양육 태도가 학업 실패 내성을 거쳐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

표 3.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부모 양육 태도 → 학업 실패 내성 → 학습된 무기력	-.210	.033	-.278	-.15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210$, 95% Biased CI = $-.278 \sim -.151$).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업 실패 내성이 낮아져서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아졌다.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조절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종속변인(준거변인)으로 한 후, 1단계로 독립변인(예측변인)인 학업 실패 내성과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항인 상호작용항(학업 실패 내성 ×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였다. 이때 3단계의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인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변인의 수준(+1 표준편차, -1 표준편차)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반면,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 각각의 주효과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1$, $p < .01$). 구체적으로, 우선 1단계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54.67$, $p < .001$),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설명량은 48%로 나타났다. 이후 2단계에서 두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항은 학습된 무기력 분산의 1%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7.41$, $p < .001$). 이때,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1$, $p < .01$).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표 4.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N = 337)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학업 실패 내성(A)	-.24	.03	-.39	-8.12***	154.67***	.48	.48***
	회복탄력성(B)	-.30	.04	-.39	-8.18***			
2	A × B	-.10	.04	-.11	-2.68**	107.41***	.49	.0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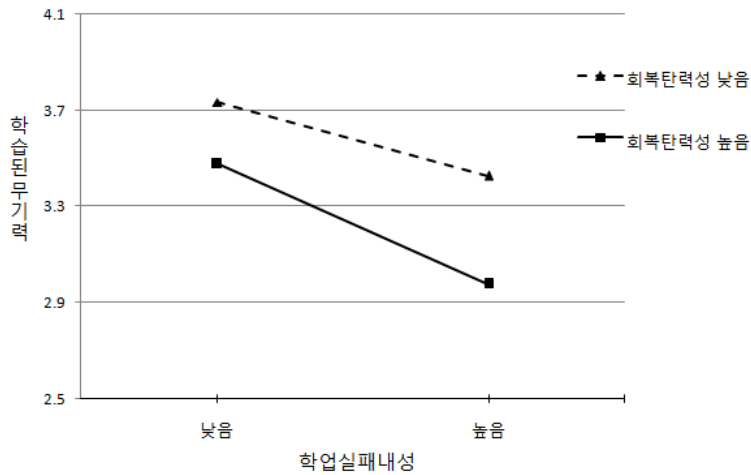


그림 2.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조절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조절효과를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의 수준(낮은 수준, 높은 수준)에 따라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낮음(-1 표

준편차)' 때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증가하면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3.73점(학업 실패 내성 -1 표준편차)에서 3.43점(학업 실패 내성 +1 표준편차)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 t = -5.85, p < .001$).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음(+1 표준편차)' 때도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3.48점(학업 실패 내성 -1 표준편차)에서 2.98점(학업 실패 내성 +1 표준편차)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 = -.32, t = -7.66, p < .001$). 따라서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 실패 내성이 증가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 더 많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eacher 등 (2007)의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합하여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학업 실패 내성, 조절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포함한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Hayes(2013)의 PROCESS(Version 2.11) 매크로(Model 14)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부모 양육 태도가 매개변인인 학업 실패 내성에 미치는 영향(a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5, p < .001$). 다

음으로 매개변인인 학업 실패 내성과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항(b3)이 종속변인인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0, p < .05$). 이는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b1)($\beta = .27, p < .001$)이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선 조절효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조절변인인 회복탄력성의 수준(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 따라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의 모든 조건 값에서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크기(절대값)가 감소하였는데(-.119, -.157, -.194), 이는 부모

표 5. 부모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 학업 실패 내성				
	B	SE	β	t	
상수	-1.06	.16		-6.55***	
부모 양육 태도(a1)	.64	.09	.35	6.77***	
	종속변인 : 학습된 무기력				
	B	SE	β	t	
	상수	3.63	.08		43.27***
	부모 양육 태도	-.14	.05	-.12	-2.78**
	학업 실패 내성(b1)	-.25	.03	-.40	-8.20***
회복탄력성	-.24	.04	-.32	-6.43***	
학업 실패 내성 × 회복탄력성(b3)	-.09	.04	-.10	-2.57*	

* $p < .05$, ** $p < .01$, *** $p < .001$, $N = 337$.

표 6.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른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의 조건부 값에 따른 학업실패내성의 간접효과			
	B	Boot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1 표준편차	-.119	.027	-.180	-.074
평균	-.157	.030	-.226	-.106
+1 표준편차	-.194	.041	-.286	-.124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학습된 무기력 수준을 감소시킬 때(매개효과), 이 효과가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조절효과)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 간 학업 실패 내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강화효과(enhancing effect)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초등학생의 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 그리고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은 부적 상관을,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한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선행 연구(강지은, 2018;

정수자,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자녀 관계, 가정 분위기 등이 학습된 무기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애정적 양육 태도가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한다는 초기 학습된 무기력 연구결과(임경희, 2004; 이종립, 2011; 유정옥, 정문경, 2016)를 지지하며, 국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유지영, 김춘경, 2014)와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일치한다.

또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실패 내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여러 선행 연구결과(김종운, 김유진, 2009; 한은숙, 김성일, 2004)와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온정적이고 민감하며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제공한다고 자녀가 지각할 때에 아동의 실패 내성이 높음을 확인한 서지혜와 이종숙(2014)의 연구, 또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하는 초등학생일수록 학업 실패 내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김종운, 김유진, 2009)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부모 양육 태도와 회복탄력성 사이의 관계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이면 자녀

의 회복탄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한 Garnezy(1993)의 연구,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회복탄력성과 부적인 상관 있음을 밝힌 연구(김해경, 서경현, 2013; 용명선, 이연승, 2011),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수용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의 요소인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확인한 연구(김계숙, 2013), 부모의 애정적·자율적 양육 태도와 회복탄력성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정혜준, 2017), 부모의 자율적, 지지적 양육 태도가 유능성을 매개로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연구(최원경, 2015)와 일관적이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가정의 심리적 환경,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보여주는 양육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이 낮고,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은 높은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 사이의 관계를 학업 실패 내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직접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업 실패 내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학업 실패 내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제한된 선행 연구로는 부모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과 학업 무기력 사이를 학업 실패 내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한 연구(유현숙, 선혜연, 2017)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 실패 내성이라는 개인 내적 특성 요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초등학교의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고자 할 때 부모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개인 내적 특질 요인에 기반하

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하였다. 즉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이 상호작용을 하여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개인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 중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핀 일부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우울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세은, 김사라형선, 2016),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한다는 연구(방한승, 최우성, 나상문, 조형규, 2017)가 있었지만 초등학교의 학업 실패 내성과 학습된 무기력 사이에서도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은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단지 극복해 내는 것뿐 아니라, 원래의 적응적 상태를 회복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이루어 내는 포괄적·총체적 능력을 가리키는 만큼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실패 내성이 증가하고, 이는 학습된 무기력 수준을 낮춰주는데, 그 완화의 정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학업 실패 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을 더 크게 낮춰주는 힘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학업

실패 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의 강화 효과를 얻지 못해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하고 완화할 다각도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부모는 수용적이며 자율적인 긍정적 양육 태도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실패 내성을 기를 수 있는 가치관 교육 및 회복탄력성 고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을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북도 충주시 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전체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자기 보고식 설문을 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좀 더 신뢰도 높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보고한 것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제 3의 관찰자의 보고를 함께 반영하여 보완 연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 요인 등의 오염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정교한 실험 설계 연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지만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성차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기반한 세부적인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하였는데, 부와 모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추가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주양육자로서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도 각 변인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에 부와 모의 양육 태도를 나누어 분석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 중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수용-거부, 자율-통제, 과잉-비과잉)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현재 상황에 따라 답변한 횡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친 종단 연구가 아니기에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 학업 실패 내성, 회복탄력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추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를 설계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강지은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1984). 학업성취가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

- 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희 (2007).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5). 무력감 감소훈련이 중학생의 학습된 무력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은, 김사라형선 (2016).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2), 239-256.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영미 (201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47-73.
- 김영효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 학습된 무기력, 학구적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강혜원 (2008).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학교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성적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10, 187-216.
- 김재현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재적 가치평가양식의 관계.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운, 김유진 (2009). 아동, 청소년상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455-468.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해경, 서경현 (2013).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회피성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0(11), 107-127.
- 김향희 (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정서간의 상관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2013). 문제는 무기력이다. 서울: 미래엔.
- 방한승, 최우성, 나상문, 조형규 (2017).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산업학회, 42(2), 69-91.
- 보건복지부 (2014., 11. 4.). 아동의 주관적 건강 및 상대적 빈곤률은 개선,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6294&page=1)
- 서지혜, 이종숙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29-457.
- 신기명 (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학연구, 20(4), 105-131.
- 용명선, 이연승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41-159.
- 유정옥, 정문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 유지영, 김춘경 (2014).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과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347-372.
- 유지영, 김춘경 (2015). 놀이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향상과 학습된 무기력 감소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9(3), 53-73.
- 유현숙, 선혜연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무기력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5), 223-239.
- 이경옥 (200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 진단 척도 개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귀인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림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1). 청소년의 역경과 자아탄력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청, 문혁준 (2016). 아동의 회복탄력성, 부모와의 애착, 학교생활 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5(4), 337-349.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 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 정남숙 (2006).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자 (1997). 가정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11(3), 225-242.
- 정혜준 (201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및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우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과용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지은 (1999).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아, 신우열, 박인아, 김주환 (2009).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3(5), 199-220.
- 최성애 (2014).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서울: 해냄출판사.
- 최원경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숙,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0(2), 177-202.
- 한지선 (2008).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영, 윤미선 (2016). 중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실목표구조 지각,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의 인과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4), 169-19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lifford, M. M. (1984). Thoughts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 108-120.
- Durbin, E. (2014). *Depression 101*. New York, NY: Spring publishing company.
- Garm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iroto, D. S., & Seligman, M.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2), 311-327.
-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New York: Broadway Books.
- Ruthig, J. C., Perry, R. P., Hall, N. C., & Hladkyj, S. (2004). Optimism and attributional retraining: longitudina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test anxiety, and voluntary course withdrawal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709-730.
- Seligman, M. E. P.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 407-412.
- Seligman, M. E. P.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Templeton Foundation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Weisz, J. R., Yeates, K. O., Robertson, D., & Beckham, J. C. (1982). Perceived contingency of skill and chance ev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98-905.
- 원고접수일 : 2019. 06.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8. 21.
최종게재결정일 : 2019. 08. 2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Learned Helplessnes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Resilience

Hyun-Jung Choi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parental attitude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resilience affect their level of learned helplessness. The participants included 337 fifth and sixth graders in one elementary school in Chungju-si,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urvey method was used and the research packet included measures of parenting attitudes, helplessnes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resil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al attitude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resili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whereas learned helplessn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other three variables. Seco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learned helplessness. Third,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learned helplessness. Lastly, there was a significant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on the link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academic failure tolerance. Th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resilience when designing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those with learned helplessness. This study also discusses i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parental attitudes, learned helplessness, academic failure tolerance, resili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